

김신욱, 아시안게임 조커 될까?

이광중호 승선할 K리그 후보는?

큰 키·빠어난 기량...와일드카드 1순위
이광중 감독, K리그 돌며 옥석가리기
이종호 김승태 등도 대표팀 차출 관심

한국축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9월19일 개막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이다. 한국축구는 1986서울아시안게임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광중 감독은 K리그 경기장을 돌며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활약하는 해외파들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다. 이종 3명은 와일드카드로 23세 이상의 선수들로 뽑을 수 있다.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누가 선택을 받을까.

●와일드카드 유력 후보 김신욱

울산의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26)은 강력한 와일드카드 후보다. 2014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해 196cm의 큰 키로 공중 볼을 장악하는 빼어난 능력을 과시했다. 아시아 국가들을 주로 상대하는 아시안게임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김신욱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 김신욱은 지난해부터 유럽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도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못해 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당당하게 유럽무대에 뛰

어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부상 등 큰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시안게임 대표팀 승선이 유력하다.

●K리그 득점 1·2위 승선할까

전남에서 뛰는 이종호(22)는 9골로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득점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포항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2년 차 김승태(23)는 8골로 2위다. 이종호는 경기 평균 0.53골, 김승태는 경기 평균 0.5골로 빼어난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이종호는 U-23 대표팀에 4차례 승선했고, 김승태는 단 한 차례만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김승태는 최근에 벌어진 지난달 1일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선발로 나서 선제골을 넣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종호는 U-23 대표팀에서는 2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자들에 비해 U-23 경기 출전 횟수가 많지 않은 K리그 득점 1·2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K리그에서 뛰는 다른 후보들

아시안게임 출전이 가능한 23세 이하 선수들 중 K리그 클래식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다. 92년생 동갑내기인 윤일록(서울), 이재성(전북), 손준호(포항) 등이다. 윤일록과 손준호는 소속팀에서 확고하게 주전자리를 꿰찬 선수들이다. 이재성은 주로 조커로 활약하고 있지만 멤버가 화려한 전북에서 살아남은 실력자다.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K리그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20명 안에 몇 명이나 이름을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나설 축구대표팀은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4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6월 브라질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김신욱(울산 현대)은 와일드카드 후보 1순위로 꼽힌다. 스포츠동아DB

레버쿠젠, 손흥민 보내줄까?

FIFA 주관 대회 아니라 차출 의무 없어
금메달 땀 병역혜택...레버쿠젠도 이익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2014인천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승선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23세 이하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손흥민은 22세로 합류가 가능한 나이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광중 감독도 손흥민을 원한다.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에게도 아시안게임은 중요하다.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차출 여부다. 소속팀 레버쿠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



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어서 구단은 선수를 보내줄 의무가 없다. 또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은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경기가 열리는 시기다. 이광중 감독이 선발하면 대한축구협회가 레버쿠젠에 차출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선수도 아시안게임 출전의 필요성을 구단에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야 한다.

손흥민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해결하면 레버쿠젠도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 손흥민의 몸값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출전은 긍정적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

최용석 기자

FIFA “2022년 월드컵 후보국 실사단도 집중 조사”

뇌물 수수 대상·범위 상상 이상 분석
3차 투표서 탈락한 한국도 조사 대상

2022카타르월드컵 유치 과정과 관련해 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당시 각 개최 후보지를 조사한 실사단을 대상으로 엄중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핵심 관계자는 27일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FIFA의 최고 윗선에서 2022년 월드컵 개최 후보국들에 파견된 실사 담당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공정한 점검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뿐 아니라 사소한 경비 지출 내역까지 낱낱이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14브라질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영국 언론 선데이타이म्스는 2022년 월드컵 본선 개최지 선정에서 카타르가 모하메드 빈 할파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을 중심으로 투표권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FIFA는 이후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초 브라질월드컵 종료 시점에 맞춰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하려 했지만 방침을 바꿔 9월이나 10월 초로 일정을 늦췄다.

2022년 월드컵 비리 조사는 사실 한국 축구에게도 광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월드컵 유치를 희망했지만 3차 투표에서 밀렸고, 카타르가 개최권을 따냈다. 결국 FIFA가 월드컵 개최지 선정단

이 아닌, 후보국 실사단까지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그만큼 뇌물 수수 대상과 범위가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편 FIFA는 최근 러시아 점령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미사일 피격 추락 사고를 이유로 유럽 각국이 제기한 2018러시아월드컵 개최지 변경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드로그바, 친정팀 첼시와 2년만에 재회

2004년 첼시 입단해 8시즌간 157골 기록

‘드록신’ 디디에 드로그바(36·코트디부아르·사진)가 다시 첼시의 파란 유니폼을 입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는 26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드로그바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드로그바는 첼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급’ 스트라이커다. 조세 무리뉴(51) 현 감독이 부임한 2004년 첼시에 입단해 8시즌 동안 341경기를 소화하며 157골을 터뜨렸다. 2012년 중국 상하이로 이적한 그는 지난해 갈라타사라이(터키)를 거쳐 2년만에 친정팀에 복귀했다. 첼시

는 최근 프랭크 람파드(뉴욕), 애슐리 콜(AS 로마)의 이적으로 베테랑들이 대거 이탈한 공백을 드로그바를 통해 채운다는 계획이다. 드로그바는 복귀 인터뷰를 통해 “무리뉴 감독님과 다시 만나는 기회를 거절 할 수 없었다. 첼시는 내게 고향이나 다름없다. 팀 승리를 돕고 싶다”며 친정 복귀 소감을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드로그바의 재입단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반겼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stopwook15

▶1면에서 이어집니다

다행히 잃어버렸던 미소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다. 아빠에게 힘이 되기 위해선 더 열심히 해서 기쁨을 드리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이보미는 우승 직후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아빠가 편찮으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다. 늘 건강하셨기에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경기하면서 계속 아빠 생각뿐이었다. 혹시 우승하지 못하면 아빠가 실망하실 것 같았고, 아빠를 걱정하느라 우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더 집중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우승트로피를 아빠에게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딸의 우승 소식에 병상의 부친도 힘을 얻었다. 이보미는 “아빠가 우승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하셨다고 한다. 눈물까지 흘리셨다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라면서 “아빠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아빠가 ‘빨리 완쾌해서 9월에 열리는 일본여자오픈을 보러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꼭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이보미는 아빠에게 드릴 눈물의 우승트로피를 들고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우상혁(충남고)이 2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곤주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 남자높이뛰기 결선에서 3위를 기록한 뒤 태극기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육상경기연맹

높이뛰기 유망주 우상혁, 세계주니어銅

한국 남자높이뛰기의 유망주 우상혁(18·충남고3)이 2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곤주 유진헤이워드필드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높이뛰기 결선에서 2m24의 개인 최고기록(종전 2m22)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위 미하일 아키멘코(러시아)와 2위 드미트리 나보카우(벨라루스) 역시 우상혁과 기록(2m24)이 같았지만, 성공 시기 차이에 의해 순위가 가려졌다.

한국 육상이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입성한 것은 2004년 김현섭(남자 경보)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우상혁의 기록향상을 위해 세계적인 육상지도자 댄 페프(미국·세계육상센터 교육부장)의 전담지도를 포함해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상혁은 2013년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2m18)에 이어 2014년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시니어대회의 입상 가능성도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여자골프대표팀, 국가대항전 PO 미국에 승리

한국 여자골프대표팀이 27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오웬스 밀스의 케이브스 밸리 골프장(파71·662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골프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대회 셋째 날 미국과의 와일드카드 결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뒀다. 앞서 진행된 일본과의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승1패를 기록한 한국은 3승3패(승점 6)로 조 3위에 머물러 자력 결승행이 무산됐지만 A조 3위에 그친 미국(3승3패·승점 6)과의 플레이오프에서 ‘필승 카드’ 박인비(26·KB금융그룹)·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이 모두 버디를 낚으며 승리를 차지했다.

김재강, 전국레슬링대회 자유형 97kg급 우승

김재강(칠곡군청)이 27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0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레슬링대회 남자일반부 자유형 97kg급 결승에서 서민원(삼성생명)을 판정승으로 꺾고 1위에 올랐다.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85kg급 결승에선 박진성(창원시청)이 진경욱(수원시청)에게 풀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자유형 55kg급 결승에선 엄지은(제주도청)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오혜민(대전유성구청)을 10-0 풀승으로 제압했다.

안영권, 전국시도학생역도대회 남자85kg급 우승

안영권(충북영동고3)이 27일 강원도 양구군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생역도대회 남자85kg급에서 인상(132kg·1위)·용상(162kg·2위) 합계 294kg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58kg급에선 박민경(경기체고)이 인상(80kg)과 용상(101kg), 합계(181kg)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박민경의 용상과 함께 기록은 새로운 대회신기록이다.